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23장 1-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아브라함의 일생은 '떠남과 이별, 그리고 버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카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까지 세상의 의지하던 모든 것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세상에 속한 것을 소유하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타락한 본질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줍니다. 세상은 사탄이 임금 노릇 하는 저주받은 곳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결코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집착하고 있는 세상적인 소유나 헛된 소망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A Life of Letting Go



Passage: Genesis 23:1-6 (ESV)

Date: September 20, 2026

Pastor: Dong Suk Chung

In our Christian walk, we often spend immense energy trying to gather, secure, and hold onto things of this world. However, as we look closely at Genesis 23, we are reminded of a fundamental spiritual reality: our earthly journey is defined not by accumulating worldly treasures, but by learning to surrender them into God's hands.

Abraham's life offers profound spiritual lessons for believers living today. From the moment God called him out of the world of idols, his life became an ongoing series of departures, farewells, and surrenders. Every earthly attachment Abraham might have called his own, everything he had gained in the world and everything he had tried to rely on by his own strength was surrendered to God. He left his country, his father's household, his nephew Lot, his servant Eliezer, and Ishmael, his son conceived by Hagar, his wife's servant. And in the end, he had to let go of his beloved wife, Sarah.

When Sarah died, Abraham mourned, but he did not remain trapped in grief. He rose up and bought her a burial place. Although Abraham spent his life as a pilgrim dwelling in temporary tents, he invested heavily in a grave. Why? Because in the biblical journey, the tomb signifies death to the flesh; the essential prerequisite for resurrection life. He had no land of his own in Canaan so he approached the Hittites as a stranger and asked to purchase a grave. They offered him their finest tomb for free, but Abraham insisted on paying full price, 400 shekels. He would not accept even a burial plot as a gift from the world he was passing through.

This reveals the nature of fallen humanity, which keeps trying to possess what can never be possessed eternally and keeps trying to live according to worldly desires. We reach for permanence and security through marriages, children, and careers. But none of these last forever: children grow and leave; marriages end in death. Because this world has fallen under Satan's rule and lies under a curse, everything we labor for under the sun eventually slips from our hands. Therefore we must not place our hope or our trust in anything of this world; living according to the desires of the flesh ends only in empty disappointment. Abraham understood this so deeply that he spent his whole life in

tents, never building a permanent house, and directed his only real investment toward a burial ground, a place that marked not his life in this world but his hope beyond it.

Although our hope is in heaven, the one reason we must still exist in this world is that this is where salvation is found. Hardship often exposes the fragility of worldly happiness. When life's trials shatter our personal plans, God uses those moments to strip away our reliance on the "old self" and bring us into a real encounter with Christ. When we experience Jesus' grace in our lowest valleys, His supernatural peace enables us to forgive, love beyond human limits, and walk as citizens of His heavenly Kingdom. Throughout his life, Abraham lost and surrendered everything, yet he received back his son Isaac, whom he had already let go when he offered his son as a burnt offering to God. That is the one thing Abraham could call an everlasting possession, not because he held onto it, but because God returned it to him. In the same way, the only possession we can hold forever in this world is the life of Jesus Christ, God's own Son. Christ came into this world,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completing our redemption. As new creations who have died and risen together in Christ, we can find no meaning in anything in this world apart from this truth.

Just as King Solomon confessed that all labor under the sun is vanity, living for a false identity belonging to the flesh is nothing more than a vain existence filled with endless toil. Just as children grow up and leave their parents, all human institutions and cultures ultimately leave us so we are left in a one-on-one encounter between God and ourselves alone. Therefore, as beings with fallen fleshly natures, our only hope must be in finding our true self in Jesus. We do not become our true selves through worldly knowledge or possessions; rather, we must discover our newly created self within the cross,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hen, in our homes and in our individual lives, we die to self and resurrect with Christ who dwells within us, the Lord Himself works and resolves every problem. Rather than striving to solve problems by our own strength, we must hand ourselves over to death so that the Lord can work freely within us. Setting no hope on anything in this world, discovering the self newly created in Jesus Christ alone, and daily crucifying ourselves while making our grave larger—this is the one treasure and blessing we are to take hold of in this world.

삼나소식

나성교회



삼성교회

10월 4일 2026년

NASUNCHURCH.ORG

127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23장 1 - 6절

날짜: 9월 20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아브라함의 일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세상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생애는 끊임 없는 떠남과 이별, 그리고 버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지하던 조카 롯과 이별해야 했고,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을 버렸으며, 자기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들과 자기 힘으로 의지하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으며,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음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자꾸 소유하려 하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타락한 인간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사탄이 임금으로 타락하고 저주받은 곳이기에, 태어난 인간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거나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헛된 실망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곳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렸으나,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아들 이삭을 도로 받아 찾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한 새 피조물로서, 이 사실 외에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헛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가짜를 위해 사는 삶은 죽도록 고생만 하는 헛된 생활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듯, 세상의 모든 조직과 문화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독대만을 남겨둡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 안에 참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소유로 참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서 새로 창조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땅에서 장막집에 거주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선악과로 타락한 죄의 실상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했으나, 부활의 진리와 새로운 희망을 알았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헛족속은 나그네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왕자와 같은 방백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야 하며, 참된 복음의 생명이 인격의 변화를 통해 흘러나가야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사자를 장사하기 위해 헛족속의 의를 마다하고 은 400 세겔을 지불하여 소유지 무덤을 마련한 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 역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으로 부활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며, 죽음은

라는 지점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 육신을 죽이고 무덤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내 안에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간 소 식

- 담임 목사님의 한국 여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 10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예배 후에는 행정위원회 선교부에서 각 남녀 선교회 후원으로 선교기금 조성을 위한 바자회를 갖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서울 삼성교회를 방문하시는 나성교회 교우분들께서는 삼성교회에 미리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신정순 전도사 (010-8909-2127)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org>
- information@nasungchurch.org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윤성한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박순옥 집사

척추에 실금이 가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양희 집사
(한나선교회)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희정 집사
(한나선교회)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옥경 집사
(한나선교회)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현숙B 집사
(2여선교회)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신자 집사
(한나선교회)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오중 집사
(3남선교회)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이상문 집사
(모세선교회)

파킨슨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묘자 권사
(모세선교회)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세훈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현숙 권사 딸).

미리암 리
(에스더선교회)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이시용 장로
(모세선교회)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오른쪽 어깨 탈골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 감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무릎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